

하느님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교구 다문화미사 참가



필라델피아 한인 천주교회 신자들이 필라델피아 대교구가 주최하는 다문화미사에서 넬슨 대주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뉴스’라는 주제로 열린 대화와 형제애 공간을 넓히라는 부제를 달고 필라델피아 대교구가 주최하는 다문화미사가 지난 11일(토) 주교좌 ‘성 베드로와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렸다.

대주교 넬슨 페레즈(Nelson Perez)의 주례로 봉헌된 이날 미사는 50여 명의 사제단이 입장했고, 인근 5개 카운티 교구에서 온 28개국 36개 성당 신자들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기 독특한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천여 명이 넘는 신자와 8개의 성가대가 어우러져 시작 성가로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필리핀 공동체가 춤을 추며 입장할 때 하느님 안에 모두가 하나되는 뜨거운 체험을 하며 은총의 끈으로 묶여 졌다.

넬슨 페레즈 대주교는 강론에서 “우리가 어느 민족이든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음식을 먹든 공통점은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식탁은 서로 다른 우리를 한 곳에 불러줍니다. 하느님 식탁인 제대 앞에 모여 서로 다른 언어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어렵고 아픈

과정이 있어야만이 형제애 공간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다민족의 특유한 문화는 컴퓨터의 조직적인 기능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일을 하며 서로 상승효과를 이루고 이 사회를 발전하게 합니다”라며 격려했다.

이 미사는 15개의 언어로 각 나라별로 미사의 한 부분을 맡아 진행되었다. 1975년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서로가 다른 문화적 배경과 뿌리를 존중해 주고 가슴을 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손잡고 자신을 기쁘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축제의 마당이다. 본당은 김향숙 켄마가 제1 독서를 맡았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신유승 가밀로 사목회장은 “미국을 샐러드 보울(salad bowl)이라고 한다. 샐러드 그릇에 담겨 있는 갖가지 야채와 과일, 씨앗들이 제각기 독특한 향기를 내 뿜으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몫을 하며 최상급의 맛을 낸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보호 안에서 다민족들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장해 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경숙 명예기자